

KICEM

2023년 제1회 리스크전문가초청세미나 사업의 비용 및 일정의 불확실성, 이제 측정하고 관리해야



김홍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삼부토건 책임, hykim74@sambu.co.kr
조인성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KH건설 부사장, insung.cho@daum.net
임종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바롬브레인 대표이사, jklim54@daum.net
최성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한국건설관리연구원 팀장, koreaclf@daum.net

1. 행사개요

‘사업의 비용 및 일정의 불확실성, 이제 측정하고 관리해야’라는 큰 주제에 걸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 발표를 듣고 질의 및 토론하고 학술, 정보를 교류하는 올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첫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러한 주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최기관인 한국리스크전문가협회(K-Risk)에서 최근 발간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 내용에 대한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한국건설관리학회와 K-Risk의 회원 중심으로 20여명이 참여하여 열정적인 강연과 질의 토론이 있었다.

2. 발표내용

첫 번째 발표주제는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최초 제1편부터 최근의 제3편까지 계속 발간사업 PM을 맡아왔던 K-Risk 발간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홍연 박사(삼부토건)가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하였다. 국내 리스크관리의 활성화와 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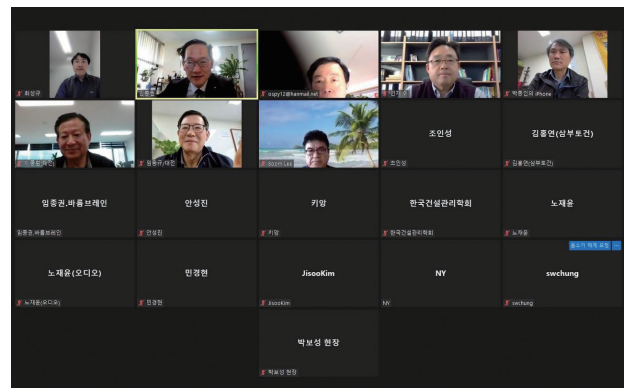


그림 1. 참석자 회의 현황

K-Risk에서는 2020년부터 본 가이드라인의 발간을 시작하여 작년 말에 벌써 세 번째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발표에서는 제1편 일반지침, 제2편 워크숍지침 및 제3편 리스크기반 견적지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구성의 발간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제1편과 제2편을 중심으로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발표는 K-Risk의 융합소통위원회 조인성 박사(KH건설)가 ‘리스크기반 견적지침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제1편과 제2편에 더하여 가장 최근(2022.11)에 새롭게 내용을 추가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3편 ‘리스크기반 견적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조인성 박사는 가이드라인의 제3편 리스크기반 견적지침 발간 작업에 깊숙히 관여하면서 많은 경험

을 녹여 넣었다. 다양한 선진·국제 수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제3편 리스크기반 견적지침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비용견적의 원칙과 구성원의 역할, 10단계의 리스크기반 비용견적 프로세스, 기본비용 견적의 주요 내용, 그리고 책에서 간략히 소개한 리스크기반 일정 견적 파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리스크기반 견적 지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K-Risk 회장인 임종권 박사(바름브레인)가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근 이슈인 Chat GPT에 관련 질문을 하고 키워드를 도출해 강연 흐름을 가져간 발표내용이 인상 깊었다. 아직 리스크관리가 한국 건설산업 등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제도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하였고 특히 최근 이슈인 AI의 리스크관리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폭넓은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3. 발표 후 종합토론회

세 명의 전문가 발표 이후 참여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참여자 중 이민재 교수(충남대학교)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기법을 국내 건설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가?’ 라는 활성화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집중 연구 분야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에 대해 시모크컨설팅 이범구 대표는 ‘리스크관리 관련 표준화와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종권 박사는 ‘리스크관리가 아직 문화로 정착되지 않은 이상 한 번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인 리스크관리 성숙도 향상 및 관련 부분의 연구와 지속적인 교육,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

4. 차기 세미나 계획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리스크관리 기술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무료 세미나 위주의 행사를 매월 1회 정도 개최하고 있다. 차기 제2회 리스크전문가 초청세미나는 4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모크컨설팅 이범구 대표와 PCCA 박성철 대표

가 입찰단계의 리스크관리와 비용·일정 리스크분석 개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대면 실습위주의 유료 교육은 리스크 워크숍 및 몬테카를로분석 SW활용을 통한 몇 차례 걸친 교육은 하반기때 수행할지 여부는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5. 맺음말

리스크관리 관련 세미나와 교육 컨퍼런스 등의 기회를 통해 리스크를 고려한 비용 및 일정 견적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리스크를 고려한 비용 및 일정 추정 방법은 국내 실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매우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GTX-A 사업에 K-Risk 회원들이 참여하여 일정 리스크분석 실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비용 및 일정 관리를 위한 리스크기반 접근방식의 추진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축적된 사례들을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적극 소개하고 국내 적용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고자 한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K-Risk와 함께 PMP/RMP 등 글로벌 리스크관리 자격 취득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ARS/CRS 등 국내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금회 세미나는 최근 개정·발간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1편 리스크관리 체계, 2편 워크숍기반 리스크관리, 3편 리스크기반 견적 이론과 선진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가이드라인 최종 개정판(2022.11)은 제1편부터 제3편까지 모두 수록하여 출간하였으므로 제1편(초판), 제2편(제2판)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한국리스크전문가협회(K-Risk)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이드라인 한 권을 가입선물로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